발간자료

• **보험 SPOT:** 전일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발표. 자본의 계층화. 기본자본 구조상 순자산이 중요: (1) 유상증자, (2) 이익잉여금 증가, (3) OCI 금융자산 평가익 증가 등이 기여할 것. 당장 추가적인 액션 가능성은 낮을 것. 다만, 유상증자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음. 기본자본 높은 보험사는 기존의 주주환원 강점 포커스 유지 가능
(금융 김지원)

• **JP모건 SPOT:** 4Q25 순이익 130억달러(YoY -7.0%, QoQ -9.5%). 비이자이익 감소와 대손 부담에도, 이자이익 양호. 미국 가계소비 양호, 투자자금으로의 이동이 나타남. 다만, ROE 하락에 배당보다 다시 자사주 매입소각 방향 언급
(금융 김지원)

• **하이브_BUY/42만원:** 공개된 일정 기준 총 79회, 374만명 수준. 암시한 일본, 중동 지역 각각 6회, 1회를 추가 가정 시 총 86회, 409만명 전망. 앵콜콘 등 추가 투어 가능성도 존재. 시장 기대치 65회 이상, 300~350만명 크게 상회. 한국, 일본에서도 예상치 상회하는 티켓 가격 인상 동반. 티켓 가격이 높은 북미, 유럽 지역이 각각 28회, 10회로 전체 투어의 약 45%를 차지, 전반적인 ATP 상승을 견인할 전망. ATP는 약 27.6만원까지 상승하며 총 티켓 매출 약 1.1~1.2조원 예상. 공연 MD 객단가 $50~60 가정시 최소 3,500억원 추가 발생. 티켓+MD 매출 합산 최소 약 1.5조원 수준 매출 기대
(엔터 임도영)

• **농심_BUY/55만원:** 4Q25 매출액 9,081억원, 영업이익 320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 하회 추정. 국내외 마케팅비 증가, 인건비성 비용 반영, 장기종업원급여(금) 관련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하향 조정. 4Q25는 국내 및 해외에서 추가적인 마케팅 지출로 예상 대비 비용 확대. 동사는 해외 확장을 위해 마케팅비, 신공장 관련 고정비 등 비용 증가 흐름은 이어질 것. 판매량 증가 효과가 비용 부담을 상쇄하길 기대. 동사 주가는 케데헌 콜라보 소식 직후 '26년 P/E 17배를 돌파한 뒤 현재 P/E 12배까지 하락해 Valuation 부담은 없음

(음식료 이다연)

• **롯데웰푸드_BUY/15만원:** 4Q25 매출액 1조 68억원, 영업이익 128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하회 추정. 4Q24 인건비 관련 비용은 통상임금 209억원, 금 관련 비용 78억원 반영. 코코아 원가 부담은 4Q24를 고점으로 점진적 완화 추세이나, 현재 가격이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동사의 기존 투자포인트는 P-C Spread 확대 국면에 진입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현재 C 하락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 적정P/E를 하향 조정해 적정주가를 15만원으로 하향 조정

(음식료 이다연)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